

초임유아교사의 아이덴티티(identity) 형성에 관한 질적 연구¹⁾

박수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덴티티에 관해 개념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이덴티티를 고정되고 안정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Allport, 1955; Gee, 2001).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많은 학자들이 개개인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아이덴티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변화 가능한 과정 속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다(Lemke, 2003; Watson, 2006). 또한 심리학적 관점의 학자들은 교사의 전문적인 아이덴티티를 자아형성의 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있으며(Gohier, Chevrier, & Anadon, 2007) 사회문화적 관점의 학자들은 Lave와 Wenger(1991) 또는 Vygotsky 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 속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 교사의 아이덴티티가 교수(teaching)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였다. 최근의 후기구조주의 관점의 학자들은 교사 아이덴티티를 권력관계(power relations), 이데올로기, 문화에 내재된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Zembylas, 2005).

본 연구는 초임유아교사들이 교육경력 초기에 교사됨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며 또한 재구성하는가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아교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 연구는 바흐친(Bakhtin, 1993)의 “존재(Being)”개념과 푸코(Foucault, 1979)의 “권력관계”개념에 입각하여 초임유아교사들이 주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아개념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자는 교사 아이덴티티 형성의 정치적 관점을 탐색하기 위하여 복수(multiple) 아이덴티티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에서 교사 아이덴티티는 연구 참여자들의 교수와 실제(practice)에 대한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렌즈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가르침의 맥락 안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긴장과 어려움은 교사로서의 삶과 아이덴티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초임유아교사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더불어 교직에 첫 발을 내딛는 자신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임유아교사의 삶 안에 어떠한 긴장과 도전이 존재하는가?
2.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초임유아교사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1) 이 연구는 2009년 5월, The University of Georgia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축약, 번역한 것임.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나의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된 자료 중에서 주로 초임유아교사의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교사 4명으로, 모두 교사 경력 2년 이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장소와 연구 참여자를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자료 수집은 봄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여름방학과 함께 종료되었고 평균 일주일에 3번 이상 진행되었다. 교사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장관찰, 집중그룹토의, 개인면담, 현장기록, 포토에세이의 5가지 주요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저널, 전자메일, 사진, 신문, 가정통신문, 교수계획안 등의 문서들이 부가적인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사례분석(Patton, 2002)을 위하여 나레이티브 분석(Manning & Cullum-Swan, 1994)과 근거이론접근법(Charmaz, 2006)이 이용되었으며 연구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기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이 사용되었고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동료연구자들의 조언을 구했다.

III. 연구결과

1.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태”

이 연구에 참여한 초임유아교사들은 미혼의 여교사 4명이었다.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첫 해 또는 둘째 해를 보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개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의 성장배경은 교사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결정에서부터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공통적으로 모든 연구 참여자는 높은 열정을 품으며 유아교육 전공을 선택하였으며 대학에서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리고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을 선택한 뒤부터 현장에서 질 높은 유아교사가 어떤 교사인지 마음에 새겨놓고 그렇게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 왔다. 이미 배우고 알아왔던 이론들과 현장의 실제 간 차이로부터 발생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도전을 경험하였다. 바흐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초임교사로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은 역동적인(active) 존재(Being)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끊임없이 형성하고 재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흐친(Bakhtin, 1993)의 “순간의 실존”이라는 개념(Being-as-event)과 같이 초임교사들은 만남의 매순간마다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헤민은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인 평가를 접할 때마다 교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헤민 : 사람들은 유아교사는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부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교사이고요, 제 직함 또한 교사잖아요. 제 학생들은 저를 항상 교사라고 부르고 이 기관의 모든 사람들도 저를 교

사라고 불러요. 유아교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죠. 어린애에게도 교사가 필요하나?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놀아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매우 화가 나요. 저도 엄연히 초등선생님들처럼 대학도 나왔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 계획도 가지잖아요.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면담, 04/04/08)

혜민은 유아교사가 된 이후로 항상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interview, 06/16/08).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과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에는 기쁨을 느꼈지만 본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또는 동료교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에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다. 혜민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교사가 되는 준비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교육현장에 나와 직접 접했을 때 자기 자신과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 "선생님은 경험이 없어서....."

본 연구에서 초임유아교사들은 관습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점(Wortham, 2001)을 경험하였다. “초짜” 교사 또는 “어린” 교사 같은 단어는 초임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내포한 것으로 이는 초임유아교사들의 아이덴티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집중그룹토론에서 혜민은 초짜 교사를 자기주장도 내세울 수 없는 조용한 교사이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남아야 하는 외로운 교사로 정의하였다(집중그룹토론, 05/13/08).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초짜”라는 단어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하였고 교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협상하고 있었다. 다음 사례에서 아람은 본인을 힘없는 교사로 인식하면서 교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가장 힘든 것……. 아이들? No. 나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다함께 모여 있는 시간, 그 기에 나는 주눅이 든다. 숨이 탁 막히는 것처럼…….(집중 그룹 토론에서 아람의 포토에세이, 06/26/08)

아람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전체교사회이나 연령별교사모임에서 자신의 낮은 지위에 대해 생각해 오고 있었다. 기관의 교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업무 이외에 초임교사에게만 맡겨지는 부가적인 일에 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선배교사나 기관장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지시나 명령에 대해 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헤민: 제가 초임으로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면 수정하고 싶고 더욱 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근데 선배교사나 원장님이 아이들 앞에서 저를 야단치면……. 앞에다 꼭 그런 소리하죠. **선생님은 경험이 없어서 그러시겠지만**(비꼬는 듯한 목소리 흉내를 내며)……. 아이들도 모든 것을 알잖아요. 누가 더 힘이 세고 안센지. 저도 제 아이들 앞에서 그런 약한 모습 보이기 싫거든요. 그럴 때마나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로 보여질까 생각되고……. 저 웃기죠? 근데 사실이에요. (인터뷰, 06/16/08)

헤민의 사례와 비슷하게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발견하거나 나타내기 위하여 “무경험자” 혹은 “초보”란 주어진 기준 및 꼬리표에 대해 때로는 사회적 협상자로서 때로는 저항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IV. 논의

본 연구는 4명의 참여자를 목적으로 샘플링(purposeful sampling, Merriam, 1998)하여 관찰, 면담, 집중토론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본 연구의 특정한 맥락에 한정하여야 하며 일반화시킬 수 없음을 유념해야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아초임교사들이 교직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발견하기 위하여 떠났던 긴 여정을 살펴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유아교육을 전공으로 선택할 때 교사가 된다는 목표에 열정과 애착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가 되어 막상 교직이라는 “현실”세계에 들어섰을 때, 적절한 주변적 참여(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의 위치성(positionality)을 경험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교사 아이덴티티는 수많은 기억들, 인간관계들, 과거와 현재의 경험들과 깊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초임교사들에게 있어 진행 중인 일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독특하였으며, 주어진 모든 순간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사 아이덴티티를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이념을 경험하였다. 초임교사들이 경험한 긴장과 도전은 “보편적인 것”이 아닌, “독특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유아초임교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교사교육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들에게 자신의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교사로서의 삶을 지속 발달시키기 위해 지원받기를 원했고 그 방향 또한 제시해 주었다. 초임유아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단순히 미성숙한 교사로 인식하지 않고 새롭고 창의성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또 한 명의 역량 있는 교사로 인정해 주는 사회풍토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llport, G. W. (1955). *Becoming*.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akhtin, M. M. (1993). *Toward a philosophy of the act*(V. Liapunov, Tran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London: Sage.
- Foucault, M. (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A. Sheridan, Trans.). New York: Vintage.
- Gee, J. P. (2001). Identity as an analytic lens for research in education.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25, 99-125.
- Gohier, C., Chevrier, J., & Anadon, M. (2007). Future teachers' identity: Between an idealistic vision and realistic view. *McGill Journal of Education*, 42(1), 141-156.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mke, J. L. (2003, April). Identity, development, and desire: Critical question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IL.
- Manning, P. K., & Cullum-Swan, B. (1994). Narrative, content, and semiotic analysi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Merriam, S.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Watson, C. (2006). Narratives of practice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teaching.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12(5), 509-526.
- Zembylas, M. (2005). Discursive practices, genealogies, and emotional rules: A poststructuralist view on emotion and identity in teach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1(8), 935-948.